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두달 만에 2% ↑

달걀 · 돼지고기 · 오징어 · 과일 등 오름세… "향후 소비자물가, AI 진정 등 추가 상승 가능성 제한적"

달걀과 돼지고기, 오징어 등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품목들의 물가가 치솟으면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다.

그간 물가 상승을 견인해왔던 유가 상승폭은 완화되고, 채소류 가격도 하락세로 접어들었지만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세를 이끈 모양새다.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식탁물가 상승의 주범은 채소류였다.

채소류 가격은 지난해 9월 전년 동월 대비 43.0% 오른 뒤 10월 36.3%, 11월 32.9%, 12월 20.8%, 1월 17.5% 등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지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수급 안정책과 봄철 출하량 증가에 따라 2월(0.7%)과 3월(1.6%) 상승폭이 크게 줄었고, 4월(-6.0%)과 5월(-8.4%)에는 연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문제는 여전히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는 점이다.

특히 축산물 물가는 11.6% 올라 2014년 6월(12.6%)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달걀은 67.9%, 닭고기는 19.1%, 돼지고기는 12.2% 올랐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여파가 남아있는 가운데 봄철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품목이 달걀이다. AI 직격탄을 맞은 달걀 가격 상승률은 △1월 61.9% △2월 50.6% △3월 43.1% 등으로 점차 안정되는 듯 했으나 4월 52.3%를 기록한 뒤 5월에는 67.9%까지 상승했다.

수산물도 상승 대열에 합류한 모양새다. 수온 증가와 중국 어선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상승률은 7.9%로 2011년 10월(8.5%) 이후 가장 높았다.

오징어 가격이 59.0% 오른 가운데 명태(7.0%)와 갈치(6.1%) 등도 상승세다. 6개월 연속 가격이 하락했던 고등어도 5월에는 0.2% 가격이 올랐다.

과일 가격 오름세도 식탁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신선과실이 무려 19.7%나 올랐다.

수박이 17.1%, 포도가 10.9% 올랐고 참외(10.5%), 사과(7.8%), 복숭아(4.3%) 등도 가격 상승폭이 작지 않았다. 문제는 향후에도 식탁물가 안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가뭄으로 안정을 찾았던 채소류 가격이 다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물가는 최근 유가 조정 움직임과 AI 진정 등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면서도 "가뭄과 고온 등 봄철 기상재해, AI 이후 국내생산기반 복구 속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물가 변동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품목별 수급·가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재기·편승인상·담합 등 시장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대응책을 말했다. /안재용 기자

'NH콕뱅크' 가입고객 100만명 돌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돼 꾸준한 호응 얻어

농협상호금융에서 판매하고 있는 핀테크 앱 'NH콕뱅크'가 농업인 디지털 권익 증진에 기여하며 가입고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NH콕뱅크'는 젊은 세대 뿐 아니라 핀테크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농업인과 고령층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돼 꾸준한 호응을 얻었으며,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11개월 만에 '밀리언(1백만)고객 그룹' 대열에 들어섰다.

NH콕뱅크는 간단한 터치만으로 조회, 송금 등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실 이용고객이 가입자 중 90%에 육박하며 간편송금 이용건수가 850만 건에 달하는 등 높은 이용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하나로마트 간편결제 기능이 추가되며 편의성이 더욱 향상됐다.

이대훈 대표이사는 "농업인을 비롯한 모든 고객을 고려해 편의성을 극대화 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조만간 영농지원, 농산물 직거래 기능 등을 담은 농업인 전용 디지털 도구 'NH콕팜'을 출시해 농가소득 증대에 더욱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상호금융은 100만 고객 돌파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달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NH콕뱅크 신규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신형 휴대폰 등 증정하는 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거짓 · 과장 광고 판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피해 상담 건수 1분기 보다 17건 늘어 97건 집계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특정 지역에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이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한다.

소비자들이 조합 가입 과정에서 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 업무대행사의 과장 광고 등에 속았다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위가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서 제시하는 정보만으로 판단하지말고, 사실관계를 관할 지자체 등에서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관련 상담 건수가 대폭 늘었다. 지난해 1분기에는 80건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97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지적한 주요 부당광고 사례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조합설립 추진 과정에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 조감도나 평면도를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다. 조합설립이 추진단계이거나, 설립 후라도 사업계획이 지자체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조합의 토지매입이나 조합원모집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경우다. 조합설립 인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사업추진 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유사한 사례다. 추가부담금 발생 가능성을 숨기는 사례도 주의해야한다.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 등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추가부담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명 만을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살펴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의사회-전북은행, 업무제휴 조인식 가져

전북은행은 지난 8일 본점 9층 회의실에서 '전북의사회-전북은행 업무제휴'를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업무제휴 조인식에는 양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은행과 전북의사회는 2003년부터 업무제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신용카드 업무제휴를 통해 전북은행은 전북의사회 소속 회원을 위한 특별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담아 6월 15일 프리미엄 서비스 제휴카드를 출시 예정이다.

금융서비스 혜택으로는 전 가맹점 1.2%캐시백/적립, 호텔/아울렛 특전/국내 면세점 할인, 지정 공항 라운지 무료입장, 국내 특급호텔 및 인천공항 무료 발레파킹, 전국 모든 골프장 이용시 5,000원 캐시백, 항공 마일리지 적립 등이다. /안재용 기자

농진청, 여성농업인 대상 농업기계 교육 실시

농촌진흥청은 8일부터 9일까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여성 농업인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추세와 농업기계 사용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해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농작업 안전교육, 농업기계 안전사고예방, 여성친화형농업기계(트랙터, 승용관리기 등) 다루는 방법, 포장작업(땅파기, 땅갈기, 고랑파기, 두둑만들기 등) 기술교육 등이다.

특히 현장에서 쉽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실습위주 교육으로 구성했다.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적극적으로 농기계를 활용하고 농작업에 드는 노동력 절감, 사용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용 기자

도공 전북본부, 노후포장 보수로 주행쾌적성 향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9일부터 추석전까지 관내 노후화로 인한 포장파손부를 선별적으로 전면 재포장해 주행쾌적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보수연장은 호남고속도로 등 7개 노선 약 41km(1차로기준)이며 집중 보수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정읍IC~김제IC,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군산IC, 통영대전고속도로 무주IC~금산IC 구간이다. 이 구간은 지난 동절기 동안 부분적으로 포장 기능이 저하돼 예방적 보수를 위해 포장을 걷어내고 재포장할 계획이며 이번 포장보수에는 약 7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6월 무주에서 개최하는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행사에 참여하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행사기간 전에 무주IC~금산IC(4.8km/1차로)구간 포장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주행쾌적성과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작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차량정체로 고속도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감속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재용 기자

캠코, 전북지역 압류재산 공매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12일부터 14일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208억원 규모, 총 74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에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아파트와 전주시 덕진구 소재 단독주택, 군산시 소룡동 소재 공장용지 등이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15일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